

박 대통령 “윤진숙 도와달라” 임명 강행 시사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야당지도부와 첫 만찬 회동
“인사 심려끼쳐 죄송”
공식 사과에
“안보·민생 여야 없다”
문희상, 동반자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및 상임위원장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평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두 시간여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차관급 낙마 사태를 낳은 부실 인사 논란과 관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인사문제를 관련해 직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청와대에 와 보니 존안 자료 같은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며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모아 검증했는데, 그 자료에 없던 사항들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지 않으나 청문

회에서 당황해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며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밝혀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정책의 타당성이 중요하니 국회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부동산과 추경에 대해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여야 6인협의체’에서 착실하게 논의할테니 대통령께서는 느긋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에 대

해 “내가 약속했고, 공약한 사안이니 여야가 합의해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왜 전달이 안 됐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사전질문서를 더욱 보강해 시스템으로 만들고 잘못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

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바탕해 든든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도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을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박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민생과 안보에 힘을 함께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만찬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문 비대위원장의 생일과 겹쳐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청와대 측이 미리 준비한 케이크를 함께 자

르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수습에 골똘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만찬에는 민주당에서 문 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인,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영록 사무총장, 정성호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박영선 법사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장수 안보실장, 유인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김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개헌 공론화 하나

논의기구 구성 전격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 비공개회의에서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헌논의 기구는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의외로 쉽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공론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국

회 개헌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론은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 의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여야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개헌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로 집권 후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은 지난 2월 1987년 체제의 산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구성을 주도한 이 모임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뒤 국회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6인협의체’ 본격 가동

경제민주화·정치개혁 논의

매달 1회 정례화...힘로 예고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통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부적인 입법과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6인 협의체’에서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6인 협의체는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양당 정책위의장 연례에 따라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수시회의도 개최하게 된다.

6인 협의체는 오는 6월 말까지 여야 대선 공약공약 가운데 83개의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입법화 한다는 목표 하에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우선 심의기로 했다.

협의체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으며 추경 예산을 일자리 확충, 민생·서민경제 활성화

에 우선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기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위축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내주부터 여야 정책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지명해 논의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과정은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심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개혁, 정당연구소를 포함한 정당개혁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4월 임시국회의 시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는 부동산 관련입법과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드민턴장으로...산으로...바닥 표심잡기 총력

여야 재보선 첫 주말 유세전

4·24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승리의 고지를 향한 여야의 중반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휴일인 14일 일제히 거리로 나서 밀바닥 표심잡기에 최선을 다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노원병의 경우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상계동 배드민턴장 2곳 등을 다니며 유세를 맞아 운동하는 시민과 호흡을 맞췄다. 이어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지도가 열세인 점을 만회하기 위해 정몽준 의원과 합세해 아파트 단지 구성구역을 누볐다.

그는 또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 유명해진 다문화가정 출신의 이자스민 의원과 손잡고 휴일에 가장 붐비는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를 오가며 한 표를 호소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산악회 산행 출발인사를 시작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방문, 교회 예배 참석, 아파트 단지 방문인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 면을 늘렸다.

안 후보는 특히 휴일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 문화의 거리’에서 주민과 자신의 특기인 ‘공감 토크유세’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부인 김미경 교수도 안 후보와는 다른 동선으로 아파트 상가 등을 돌며 ‘선거 내조’에 나섰다.

부산 영도의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오전 봉래산 헬기장에 올라 휴일 등산객들과 어울리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 후보는 곧바로 오전 내내 여론 파급 효과가 큰 배드민턴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회원 등과 접촉하며 영도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토박이론’을 앞세운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도 상가 방문과 교회 예

배 참석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붙었던 문재인 의원이 전일부터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남은 10일간 당력을 총동원해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내세우고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권 경종론’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도입되는 ‘사전 투표’가 투표율을 제고에 기여할지도 관심거리다.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후보 등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속에서 수도권 밖의 경쟁위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선거열기가 과거 재보선에 비해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10명 중 3명 ‘검직’ 직무 전담케 원천 금지 필요”

‘정치혁신’ 세미나 제기

제19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외부 기업 및 단체의 임직원을 맡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박석희 가톨릭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89명(29.7%)가 기업 및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은 유급직”이라고 밝혔다.

검직 분야별로는 사회·노동계(28.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순이었다.

국회법은 일부 공직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금지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기업 및 단체 임직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겸직은 13대 국회 이후 급증했고, 겸직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제도로는 (겸직 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직무상 이익충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동부시장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신로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관 제080130-경-26%요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요리 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타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임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